

제 1 장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제 1 장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

1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4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5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6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

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8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
 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
 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납하겠느냐 9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공홀히 여기소
 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
 느냐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
 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
 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도 아니하리라 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12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
 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
 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3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폐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
 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
 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14 떼 가운
 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
 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I.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도 않고 보답하지도 않음 1:1~6

1. 1:1 서언

1.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 : (히)massa “무거운 짐” “중한 경고 (burden)” massa는 소리를 높인다는 동사 nasa에서 온 말로서, 특히 소리를 크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선지자의 message(oracle-말씀의 전달)를 가리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경고’라는 제목이 암시하는 것은, 첫째, 이 경고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둘째, 이것에 부담을 느끼고 책망을 받을 자들이 있으며 이것은 참으로 그들에게 하나의 짐이 되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2. 1:2-5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자신의 모든 은총의 근거를 자신의 사랑에서 찾아내시는 것 같이 자기를 거스린 그들의 모든 죄의 근거도 그의 사랑을 멸시한데서 찾아내신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배은망덕함을 깨닫도록 일깨워 주시기 위해 애쓰시면서 매우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그들을 한나라로 만들었다(신 7:6~9).

어떻게 : 이것은 말라기서의 특징인 일련의 질문들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 말라기 당시의 백성이 지닌 자기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어떻게” 라는 말은 영적인 사물에 관한 백성의 철저한 무관심을 요약해 주며 이 책의 요지인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우리는 쇠하고 헐벗었으며, 포로가 되었는데 어떤 점에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혹은” 주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을 입증하기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나요?”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 쌍둥이였기 때문에 같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입었던 형제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분이 이스라엘에 은총을 베푸신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같음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성품의 같음 때문이었음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신다. 야곱은 고통스러운 실수를 범했지만 고난의 생애 가운데서 야곱의 씨름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져진 본성을 태워버리고 마침내 브니엘의 경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었다.

3.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롬 9:13 인용).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시나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는 죽기까지 미워하신다. 그러므로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에서의 죄 곧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책망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그분이 에서와 그의 후손보다도 야곱과 그의 후손을 더 사랑하심을 밝히신다. 물론 그 편애는 그 두 형제가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에서 생긴 것이었다. 야곱은 영적인 마음을 가졌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했으며 하나님의 사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죄악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렸다. 한편 에서는 세속적인 마음을 지녔고 “망령된 자” 였으며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욕망이나 사랑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히 12:16,17 “음

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한다[히](awhabe 아하브) ⇔ 미워하다(sawnay사네)’의 대조 용법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수사학적 표현.

(창 29:30~31 “야곱이 …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총이 없음” = “미워하다” = 덜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마치 야곱이 일곱 아들을 낳아준 아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것과 같은 의미.

황무케 하였고 : 그의 산은 세일산이었고 그것이 그의 산업이었다. 갈대아 군대가 세계의 대부분을 휩쓸 당시 에돔도 파괴를 당했다(사 34:6,11). 그들이 예루살렘이 정복되는 것을 보고 개가를 올렸던 만큼 똑같은 공포의 잔이 그들의 손에 놓이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야곱의 지경들은 훼파되었으나 재건되었다. 반면에 에돔의 지경들은 결코 재건되지 않았다. 의로운 자의 고난은 그 끝이 잘 될 것이요 고통에서 회복될 것이며, 그들의 슬픔 또한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악한자의 고난은 에돔의 멸망같이 될 것이다.

시랑 : 승냥이와 이리, 황무지, 황폐한 곳, 성지의 폐허 등에는 이런 짐승들이 많다. 오히려 “자칼들” 에돔의 나라는 그런 야수들이 배회하도록 방치되었다.

4.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돔 족속의 헛된 소망에는 의지할 만한 약속이 없었다. 그들은 “우리

가 험벗게 된 것은 사실이며 있을법한 일이라. 고칠 수도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와 무너진 곳을 일으켜 세우리라.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회복 되리라” 고 말한다.(하나님께 여쭙어 보는 것조차 남겨두지 않는다.) 그들은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직접 여리고를 건축한 것처럼 재 빠르게 일어선다(왕상 16:34).

그러나 “우리는 일어설 것” 이라고 했어도 만군의 여호와와는 '그들은 쌓을 지라도 나는 헐리라'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지역을 일컬어 구제할 수 없을 만큼 죄로 가득한 나라인 “악한 지경” 이라 할 것이며, 그들을 '여호와와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그들의 사악함이 결코 개혁되어 지지 않을 것이 듯이 그들의 멸망도 결코 복구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5.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자비의 표적이 될 것이다.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백성으로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목도하고 그의 사랑에 대한 너희의 의심을 보게 되리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과 지경에서 여호와께서 크시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에돔 지경이 여전히 황폐된 채로 남아있을 때 이스라엘 지경은 복구되고 짐승과 사람들이 그곳에 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영광이 된다. 그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를 크게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를 크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혈루증 여인이 마치 예수님의 권능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 (눅 8:46).

3.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멸시함 1:6

6.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이나 :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종교를 대표하며 순종과 성화를 가르치는 자들일 뿐 아니라 모범이 되어야 할 자들을 향해 질책하신다.

주의 이름을 멸시 하였나이까 : 그분의 사랑을 사랑으로 갚는 대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 몇 년 전에 호세아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호 4:9)고 지적하였다. 백성들의 영성과 헌신의 수준은 결코 영적 지도자들의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영국의 시인 초서(chaucer)는 <캔터베리 이야기(canterbury Tales)>에서

“만일 금에 녹이 스다면, 철은 어떻게 될까?

만일 제사장이 부패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까?

평신도가 녹이 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II. 신앙생활의 타락한 상태 1:7~2:17

1.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함 1:7~1:10

7.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

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제사장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멸하였는가? 그들은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 몹시 싫어하는 제물들’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규례를 경멸했다. 그들은 성물을 귀히 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사악한 목적에 곧 그들의 자만과 탐욕과 사치를 위하여 악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그들이 보편적으로 범하던 죄였다. 이에 대해 그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그것을 입증하고자 하나님께 도전하기도 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6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7절)하는도다. 그들의 변명은 곧 그들의 공격이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거만함과 완악함을 증거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해왔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신다.

[첫째] 그들은 말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했다. 그들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7절)고 마음에 말했으며 또한 ‘여호와와 상은 더러웠다’ 고(12절) 말함으로써 어떤 상보다도 더 하나님의 상을 무시했다. 진설병이 놓여있는 성전의 상, 혹은 여기서 상으로 불리우는 번제단은 그들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들 자신의 상과 그들의 귀인들의 상과 비교할 때 경멸할 만한 것이었다.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12절)

[둘째] 그들은 그들의 말과 일치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했다. 그들은 어떠한 것이든 심지어는 매우 보잘것없고 열등한 것일지라도 제물로서 합당한 것이라고 여겼다. 모든 제물에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으나 그들은 ‘더러운 떡’을 가져왔다. 이것은 그들의 의식적인 율법을 부주의하게 따르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수많은 사례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의 행위로 여호와와의 단을 경멸하는 것이었다.

8.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납하겠느냐.”

눈먼 희생으로 : 율법은 “흠 없는” (레22:19) 희생제물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셈이었다. 백성은 잡아서 드릴 제물들이 흠이 있든지 없든지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또한 흠 있는 양과 가축을 제거하고 자신들을 위해 건강하고 완전한 것들을 보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최선의 것을 그분께 드리기를 계획하신다. 가장 좋은 것을 다른 목적을 위해 남겨두는 것은 그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하나님께 으뜸이 되는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를 드리는 것은 사실상 전혀 드리지 않는 것이다.

총독 : (히)pahah ‘지방총독’ 그런 고관에게 흠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욕이 될 것이었다. 만일 그것이 인간에게도 그렇다면 위대하고 높으신 “만군의 여호와” 께는 얼마나 더 그렇겠는가?

“근시안적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길과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의 시야는 마땅한 곳, 즉 그분께로 향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원한 사물에 대하여 고상한 견해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어두운 시력으로 이것들을 바라볼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영광과 왕후, 거룩한 천사들의 고상한 품성, 우리 구주 예수의 위엄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에 대해 명상하는 일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세상 것만을 보아 왔기 때문에 영원한 장면은 그들에게 희미하며, 불분명하게 보인다. 그들은 하나님과 천국과 영원에 관하여 제한된 견해를 갖고 있다. 거룩한 사물은 세속적인 수준으로 저하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들은 동료 인간을 대할 때처럼 인식하고

궁한 정신을 나타낸다.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저는 것, 병든 것, 흠이 생긴 것이다. 그들은 사람을 약탈하듯이 하나님을 약탈한다. 그들의 마음은 고상한 도덕적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저열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세상의 저지대의 불결한 독기를 들이마시고 있다” (2T, 259).

만일 우리가 무지하게 이해 없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우리는 눈먼 것을 제물로 가져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부주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는 냉담하고 무딘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우리는 병든 것을 제물로 가져오는 셈이다. 만일 우리가 외적인 예배의식만을 치중하여 그 예배가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저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숨어있는 헛된 생각과 방심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토색한 것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은 실로 하나님께 대한 커다란 모독이며,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엄청난 해악과 손상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사야 6장의 지성소의 경험, 곧 이사야가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얼마나 거룩하고 엄중한지를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라” 자신의 부정한 예배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정함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간구해야 할 것이다. 제단에서 취한 핀숯으로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사 6:7).

9.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공홀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은혜를 구하기를 : 말라기는 제사장들 편에서 회개하기를 강력하게 탄원

한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 이 행동이 내가 감히 행하려는 것이냐? 또는 이런 선물을 내가 감히 가져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됨으로 인하여 새긴 우상들을 숭배하던 습관이 효과적으로 고쳐졌다. 그들이 돌아온 후에 그들에게 주신 신앙적 교훈과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과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해 기록된 선지자들의 글을 연구하는 일에 크게 유의하였다. 성전이 복구됨으로 인해 그들은 성소의 의식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다. 그들은 스룹 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모두 지킬 것을 거듭 서약하였다. 그 뒤를 이은 변영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충분한 증거를 주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치명적인 근시안(近視眼) 때문에 거듭거듭 그들의 영광스러운 운명에서 떠났고 무수한 군중에게 치료와 영적 생명을 가져다 주어야 할 것을 이기적으로 횡령하였다. 이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그들의 실패가 말라기 시대에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현세적 변영과 영적 능력을 앗아 가는 죄악들을 엄격하게 다루었다. 선지자는 범죄자들을 견책함에 있어서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말라기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는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들과 세우신 언약을 성실히 지키라는 것이었다. 충심에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선지자는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공홀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고 간청하였다(말 1:1, 9)(PK, 705).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달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

라.”

너희 중에 : 선지자는 돈을 받기 위한 정심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질책하는데 심지어 아주 작은 일을 해도 보수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그들의 사업을 신실하고도 능률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다 : 제단 위에 제물은 태우는데 죄는 태우지 않는 엉터리 예배를 한탄하신다.

드리는 것 : (히)minhah, 보통 "가루"나 "곡식" 제사, 여기서의 의미는 본래 부정하게 되지 않는 이런 가루 제물들도 그것들을 바치는 자들의 올바른지 못한 정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말라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감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또 화가 그들 위에 미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받는 임금 때문에 일하는 목사들이 있다. 주의 재정은 주의 사업에 해만 끼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갈되고 있다. 목사들이 주의 사업에 자신들을 남김없이 드리고 주의 사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온 힘을 다 쏟으면 부족함이 조금도 없을 것이다” (안교 1905.1.3).

2.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함. 1:11,12

11.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 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12.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와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더럽히다 : 거룩한 것을 평범한 것(하찮은 것)처럼 다루는 것 의미.

〈유대인들의 변명과 발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말라기의 예언적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주의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그 성취를 보아 왔다. 무한하신 지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사 모든 열국들을 위하여 진리의 귀중한 보화를 간수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세계와 천사들,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 앞에서 그들이 계발해 나가야 할 품성의 표준이 되게 하셨다. 그들은 하늘 정부의 율법을 세상에 나타내어야만 하였다. 교훈과 모본으로 그들은 진리를 위한 결정적인 증언을 하여야 하였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위엄과 능력이 그들의 모든 변명 가운데 나타나야 하였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바라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품성을 계발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형식과 표제를 진리 위에 두었지만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그들의 고상한 특권을 잃어 버렸다. 그들이 받은 축복은 세상의 축복이 되지 못하였고, 그들이 갖게 된 모든 유리한 점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되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봉사를 흠치고 같은 사람들에게서 신앙적 지도와 거룩한 모본을 도둑질하였다. 그들은 홍수 전 시대의 사람들 같이 그들의 악한 마음의 모든 상상을 좇아 행하였다. 그들은 거룩한 사물을 어리석은 웃음거리로 보이게 하였다. 그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로다 여호와의 전이랴”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고 그의 이름이 욕되게 하며 그의 성소를 더럽혔다(안교 일꾼 1905. 1. 10).

3. 제사장들이 영적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함. 1:13~2:13

13.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
 폐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

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번페스러우고 : 제사장들이 그들의 성전봉사를 수행하면서 나타내는 경멸적인 권태감에 대한 암시.

코웃음하고 : 이 표현은 제사장들이 제단을 어느 정도까지 멸시했는가를 암시.

토색한 물건 : “폭력으로 취득한 물건” 즉 훔쳤거나 부당하게 취한 물건들.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 만일 그 사람이 의로운 상태에 있지도, 거룩한 상태에 있지도 않으며 따라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아벨을 받으시고 그 후에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오늘날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단지 따분한 일로 형식적인 일로 폄하하는 영적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보내는 경고다.

14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 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드릴만한 “수컷” 제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대신 “흠 있는” 것, 즉 손상된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 역설적으로 영터리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공경치 않았으나 이방인들(열방) 즉 구약 시대에 모압여인 롯과 같은 많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했다(롯 1:16). 예수님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계 2:4)고 말씀하셨다. 그 사랑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계 2:5)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기억)하고’ 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다른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생각(기억)할 때 마

땅히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찬송가 작가인 블리스는 젊었을 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라는 찬송을 썼다. 그러나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깊이가 깊어지면서 느끼게 된 것은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떠들던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던가 하는 점이였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남은 일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쓰게 되었다.

〈찬미가 194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일세. 거룩한 복음의 말씀 중에 날 사랑하신단 보증 있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한 은혜를 저버리고 그릇된 세상길 갈지라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9T, 10).

[Q]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A]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once more-continuance)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내가 은 열 다섯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호

3:1~3).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이다. 입술을 깨물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 한가지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것 밖에 없다. 그 누가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의 아픔이었다. 또한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에 의해 하나님께 사들여졌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되기만을 구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도 또한 우리들의 것으로 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요한 웨슬리는 임종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라는 일이다.' 라고 외쳤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베푸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